

중·러의 경제개혁과 상적 유통의 변화

- 개혁전·후의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

조규진*

목 차

- I. 서 론
- II.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 유통체제
- III. 개혁전 구소련과 중국의 일반적인 유통현상
- IV. 경제체제의 변화와 개혁후 유통체제
- V. 개혁후 러시아와 중국의 일반적인 유통현상
- VI. 결 론

I. 서 론

과거 사회주의국가였던 중국과 구소련이 개방되면서, 이들 시장의 잠재적 매력으로 인해 다른 자본주의기업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많은 기업은 양국에의 진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현지진출에 있어서 상적 유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현재 상적 유통현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령 현 유통현상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년 갑자기 바뀐 유통변화의 원인이 되고 또한 현 유통현상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경제체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이들 나라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유통전략을 세우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제개혁전에는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였다가 개혁후에 중

* 광운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바뀌고 러시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바뀐 상태에서는, 이 경제체제변환이 양국의 과거 및 현재의 유통현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기업들은 후술할 현재 양국의 유통현상이 경제체제의 변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체제변환후에 만들어진 현재의 유통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체제의 변환과 관계없이 현재의 유통현상에 대한 정보만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양국의 유통체제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내의 유통체제와 비슷하게 생각할 뿐이다. 또한 이러한 실무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유통제도에 관한 개별적 연구는 있었지만, 양국 모두의 유통에 대한 연구나 양국의 유통제도의 변화를 그 변화의 근본원인이 되는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혁전에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유통체제는 사회주의이론에 따라 자본주의국가들과는 전혀 다르게 성립되었다. 그리고 개혁후의 유통체제도 개혁전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국의 유통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유통에 대한 기본성격과 개혁전 양국의 유통체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개혁후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어, 양국이 모두 시장경제체제하에 있더라도 양국의 유통체제는 서구국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시장유통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양국의 유통체제가 개혁후에도 서구국가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통체제의 기본이 되는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개혁전·후의 중국과 러시아의 유통현상을 경제체제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자하는데 있다.

여기서 경제체제란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제행위와 그 성과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사상이 구체화된 제도를 말하는데, 경제체제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문제와 경제조정기구문제라는 2가지 경제체제분석요소에 의해 분석된다.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를 기준으로 할 때의 어떠한 국가의 경제체제는 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민간이 소유하는 자본주의체제와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체제로 나뉘고, 경제조정기구문제를 기준으로 할 때의 경제체제는 시장에 의해 경제가 조정되는 시장경제체제와 국가계획에 의해 경제가 조정되는 계획경제체제로 나뉜다(Peters 1987, 김영봉 1987).

양국의 유통체계는 이러한 경제체제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즉, 개혁전 양국의 유통체계는 똑같이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또한 국가계획에 의해 경제가 조정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을 받아 오다가, 개혁후 중국의 유통체계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원칙하에서도 시장이 경제조정을 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해, 러시아의 유통체계는 생산수단도 민영화하고 경제조정도 시장이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변환과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유통체계에 대한 경제체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혁전·후 양국의 유통체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논문에서는 서구국가의 유통현상과는 다른 양국의 여러 유통현상 중, 경제체제의 분석요소인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문제와 경제조정기구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유통현상은 2장과 4장의 개혁전·후 유통체제의 기본적인 성격에서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와 경제조정기구문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경제체제의 분석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을 수 없는 개혁전·후의 일반적인 유통현상은, 각각 개혁전·후 유통의 기본성격에 대한 분석에 뒤이어 3장과 5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 유통체계

개혁전 중국과 구소련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 의해 운영되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사유할 수 있고 경제의 조절이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품의 가치를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측면의 한계효용이라는 심리적 교환가치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생산수단을 국·공유하였으며 정부기관의 계획에 의해 경제가 조절되었고 상품의 가치도 공급자 측면에서의 유물론적인 사회적 평균노동량에 의하여 측정된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하에 있던 구소련과 중국에 있어서 기업의 위치도 독립적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중앙계획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해 국가전체의 계획목표량의 일부를 담당하는 계획경제를 집행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중·소기업은 계획목표의 생산량을 (초과)달성만 하면 기업존립이 국가로부터 보장되고 기업운영자금이 국가기금으로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기업과 같이 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데 대한 서비스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제품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Heitger 1990, Hirsche 1990).

개혁전 중국과 구소련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과 구소련의 경제체제가 기업의 소유가 국가이고 경제의 조정이 국가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의 경제체제는 유통체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와 경제조정기구문제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업의 생산제품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 소유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유통시스템과의 관계만 주로 있지 국가경제시스템과의 관계는 매우 약하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은 기업자체가 국가에 소유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시스템과의 관계가 생산제품에 대한 유통시스템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 또한 자본주의 제조기업은 자체생산제품에 대한 유통시스템내에서 그 규모가 타 유통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클 때는, 제품의 질, 기술적·재무적 지원 및 기업이미지 등을 근거로 타 유통기업을 지배하는 리더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의 모든 기업은 국가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유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제조기업일지라도 유통시스템내에서의 리더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유통시스템내 제조기업의 위치는, 자본주의 제조기업의 파다한 자본축적이 독점자본을 형성시켜 결국 유통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오고 자본주의 소비자는 자기의 소비욕구에 관계없이 독점제조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이끌려 수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주의이론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결과이다(Fahr 1977, Uhlig 1977).

경제조정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유통의 성격이 기업차원의 시장조사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유통시스템내 기업간의 계약관계인데 비해서, 계획경제체제는 국가차원의 시장조사에 따라 세워진 제품생산의 국가계획에 따라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기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유통이란 국가계획에 따른 생산제품의 분배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유통에 대한 생산제품의 국가계획적 분배라는 개념도, 시장경제의 유통개념은 결국 독점기업인 거대제조기업의 확산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데에서 생겨났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내에서 제조기업이 유통기관을 소유하는 수직적결합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유통시스템내에서도 수직적 마케팅을 통하여 유통시스템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장경제는 결국 독점자본을 형성한다는 시장경제적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생겨난

계획경제적 유통이론에 의하면, 국가기관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업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분배개념이 더 옳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계획에 의한 생산과 분배라는 계획경제원칙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전국적 시장조사에 의해 소비자욕구가 파악될 수 있고 유통분배가 독점기업의 왜곡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빨리 변하면서도 다양한 소비자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제품혁신에 대한 제조기업의 욕구가 지극히 적었으며, 중앙기관에 근무하는 공산당원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유통 중 많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제품에 대한 암시장이 존재하여 계획경제내의 분배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Uhlig 1977, Welfens 1988, 윤찬혁 1993).

또한 시장경제의 원칙이 시장에서의 공급자 및 소비자의 한계효용이라는 심리적 요인에서 출발한데 비해, 계획경제는 세상의 모든 기초는 인성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유물론에 의한 물질생산의 우선정책에 따라 유통은 생산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되었었다. 즉, 생산이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제품으로 형태를 변환시켜 가치창조를 하는데 비해 유통은 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기존제품을 형태변환 없이 시·공간적으로 이동만 시키기 때문에, 유통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가치를 직접 창출하지 못하며 부수적으로만 가치를 창출한다하여 생산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였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이 모두 적용된 시장가격과는 달리, 오로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여진 총노동시간을 제품수로 나눈, 즉 한 제품에 들여진 노동량을 사회적으로 평균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었다. 이렇게 정해진 제품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즉 생산기업과 유통기업과의 관계나 유통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국가의 간섭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국가계획기관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가격이 그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공식가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혁전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와 같이 제조기업과 유통기관이라는 독립단위들 간의 계약관계에 근거하는 계약적 유통이라는 개념은 없고, 국가차원의 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에 근거하는 국가계획의 분배적 상품유통개념만 있었다. 이런 면에서 도·소매업을 담당하는 유통기업은 유통시스템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중앙정부의 도·소매담당관서가 계획경제적 유통에서 유통기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국가계획에 의

한 중앙정부부서의 통제로 인해 실제적 면에서의 암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유통질서는 유지할 수 있었다(Whitesell 1990, 한국무역협회 1991, 박기안 1989).

III. 개혁전 구소련과 중국의 일반적인 유통현상

1. 구소련의 유통현상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의 유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국가행정기관이 유통을 담당했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의 하나인데, 개혁전 구소련에 있어서 재화유통에 대한 최고정부기구인 고스납(Gossnab)으로 이 기관은 전국적 차원에서 기업간 거래시장에서의 유통계획 및 통제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수급 및 분배되는 제품에 관한 수량이나 가격 등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고스납이 기업생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고스프란(Gossplan)과 긴밀한 협조하에 모든 유통부문을 통제하였다. 고스납은 제품을 수급·분배할 때 구소련내에서의 각 연방정부서에 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에 따라 각 연방부서는 연방내 각 제품을 담당하는 기업에게 제품의 분배량 및 가격을 지시하였다(Freris 1984).

이렇게 고스납의 전국적 중앙유통계획하에서 일반소비재 및 서비스의 도·소매유통은, 협동조합시장 등의 자생적 소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유통성에서 관리하는 국영판매망을 통하여 대부분 유통되었다. 단지 노동자·농민 중심적 사고방식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분배경제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사회주의이론에 따라, 농촌지역에의 공업제품 분배 및 농산품의 전국적 분배는 특별히 식료품·생필품국가위원회에서 담당하였었다. 또한 원거리지역 및 특수상품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특별행정기관이 담당하였는데, 예를들어 국영상점이나 조합상점도 없는 원거리지역에는 물자수송 담당부처가, 화학류와 같은 특수상품은 보건부가 담당했다. 이와 같은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재유통은 유통성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유통담당 중앙부서의 통제를 따라 유통기업이 생산제품을 분배하였는데, 이중 국영기업이 약 70%를 담당하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업은 약 25%를 거래시켜 분배의 대부분을 국영기업과 협동조합이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5%는 합법적 소규모 사영기업이 집단농장에서 나오는 잉여농산물 등의 식품관련 부분에 한하여 유통시켰다(한국무역협회 1991, 윤찬혁 1993).

이러한 유통에 대한 구소련 정부의 통제와 관련하여 개혁전에는 제품생산이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시장경제에서처럼 소비자욕구가 생산제품의 종류나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생산기업도 제한적으로만 제품생산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개혁전 구소련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주산업이나 국방산업은 상당히 우수하였으나, 일반기업이 생산하는 소비재나 그의 생산재에 대한 제품질 및 외형적 디자인은 경쟁상태결여로 인하여 시장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 밖에 없었으며 구소련내 소비자가 써야할 제품이 소비자의 취향과는 동떨어지게 만들어지기가 다반사였다. 즉 구소련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의 중요한 욕구 중의 하나인 제품의 질, 다양성 및 생산량의 면에서 구소련과 대등한 기술을 가진 여타 자본주의국가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 객관적 열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구소련기업 스스로가 소비자에 대한 시장조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및 기업존립에 관한 경쟁이 없이 유통관련 국가행정기관의 물자수급계획에 따라 생산제품의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계획경제하에서는 생산면에서 제품의 질적 혁신이 없고 제품생산량의 증가가 없을 때가 유통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냉소적인 분석이 어찌면 타당할 지도 모른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계획경제에서의 제품의 양적·질적 발전은 중앙기관의 유통부문 통제를 약화시켜 유통을 혼란시킬 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유통부문의 효율화와 생산부문의 발전이 역상관관계에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의 경제발전은 체제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Whitesell 1990).

이와 같은 제품분배로 인한 유통시스템내 비효율성의 결과로 구소련 말기에는 민간부문에서 - 특히 소비재부문에서 - 암암리에 비공식적 유통기관이 형성되어 계획경제의 유통질서가 상당히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암시장의 출현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통한 사회주의적 유통질서를 상당히 혼란시켰다. 게다가 고위관직의 중간매돌리거나 중간상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하여 정부계획하의 유통은 거의 마비되어 유통상점에는 상품이 거의 없게되자 암거래는 더욱 극심하게 되었다. 또한 구소련 말기에는 암시장의 출현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통질서의 혼란과는 정반대 현상인 제조기업과 유통기관간 거래관계에서의 경직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기업간 생산재의 유통 거래에서만 허용되었던 바터제도로 인한 거래선의 경직성이 차츰 농업재의 거래에서도 통용되더니, 나중에는 생산재 및 소비재의 거의 모든 재화에서 그리고 제조업과 유통기관과의 거의 모든 거래에서 통용되어 유통거래선은 완전히 경직화되어 가고 있었고, 경직된 제조기업과 중간상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산업에서의 제조기업이 두

세계 밖에 안되는 계획경제의 공급상황에서 수년간 형성된 거래선을 깨뜨리게 될 경우 그 특정산업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모두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암거래로 인한 유통혼란과 유통거래선의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소련 말기의 이러한 기현상은 계획경제원리에 의한 유통체계의 비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소비자는 매일 먹어야하는 빵하나를 사는데 1시간씩이나 기다려야하고, 제조기업은 제조기업대로 운영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생산량을 줄여야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Freinkman 1992).

2. 중국의 유통현상

중국의 유통은, 도·소매상의 측면에서 분석되는 러시아의 유통과는 달리 주로 재화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생산재를 물자(物資)로 소비재물 상품(商品)으로 부르고 있다.

물자(생산재)유통은 정부의 계획하에 물자발주회의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수량, 가격등을 결정하며, 생산재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방법 및 수익성관리까지도 책임을 지고 계획·관리하였다. 생산재에 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분배하였으며, 생산기업은 물자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데 있어서 자율적 의사결정권한이 없었다. 생산재유통방식은 크게 셋으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중요물자인 철강재, 목재, 시멘트, 석탄, 기름, 자동차 등과 같은 통배물자(統配物資)는 기업자체용을 제외하고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하여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하에 정부가 일괄하여 분배·조달하였으며, 둘째는 비교적 전문성을 띠는 농기계, 방직전용설비, 판유리와 같은 부관물자(部管物資)의 경우 국무원의 특수전문부에서 이의 유통을 관리하며, 세째로는 소형기계나 기와 등과 같이 종류가 다양하고 생산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관리물자(地方管理物資)는 현지의 물자담당부문이 분배를 맡았다(최수웅 1993).

상품(소비재)에 관해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급에 따라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3개부류로 분류하여 국가계획에 따라 분배하였다. 3개부류 중 1류상품은 양곡, 목화, 휘발유 등의 국민생활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상품으로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수매 및 판매를 하였다. 2류상품은 가축, 약품, 자전거 등과 같이 민생에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품인데, 이는 국무원에서 각 성, 시, 자치구 등의 지방에게 개략적으로 할당지표만 주며 이의 구체적 계획은 각 지방에서 작성하였다. 3

류상품은 1,2류 이외의 상품으로 일반 소액공산품 및 지역특산물 등을 말하는데,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위와 같이 상품에 따른 유통통제와 함께 3형태의 유통기관의 성질에 따라 유통통제를 하였는데, 첫째는 농·공업 생산기업소(제조기업)에서부터 상업기업소(유통기관)에의 상품판매 즉 도매유통, 둘째는 상업기업소에서 소비자로의 상품판매 즉 소매유통, 셋째는 상업기업소간의 유통으로 나뉜다. 첫째의 도매유통에는 여러방식이 존재하는데 1류상품을 통일적으로 도매하면서 생산량초과량도 국가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통일수매방식, 2류상품과 일부 3류상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실행하되 생산초과량은 생산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수매방식, 판매량이 비교적 커 상업기업소가 생산기업소에 주문·예약하여 상품을 보관하는 예약수매방식, 그리고 3류상품중에서 다품종소량을 선택하는 선택수매방식이 있다. 둘째의 소매유통방식에는, 양곡 등과 같이 국가가 인구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당하는 계획공급방식, 2·3류상품중 일시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 증권을 발행하였다가 증권에 따라 차후에 판매하는 증권공급방식이 있으며, 위험물 등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직업의 특수상황에 따라 차등공급하는 특수공급방식이 있다. 세째의 상업기업소간의 상품유통은 국가계획에 의해 상품을 유통시키다가 유통에 차질이 생길 때 전국단위 내지 지방단위로 상업기업소들이 회의를 소집하여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유통방식이다(홍순태 1990).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개혁전 중국의 구체적 유통제도는 구소련의 구체적 유통제도와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과거 30년간 서로의 분쟁으로 서로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국의 유통제도는 다를 지라도, 개혁전의 구소련과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상품을 전국적으로 분배한다는 기조는 같았다. 또한 유통기관의 소유형태에 있어서도 도매유통업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소규모 소매유통기관도 대부분 국가에 의해 소유되었고, 조합형태인 집체상업(集體商業)은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유통기관은 이렇게 국가에 의해 소유될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에 의해 경영되는 국영상업(國營商業)이었다(Heinzig 1990, 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4).

IV. 경제체제의 변화와 개혁후 유통체계

개혁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하에 있었던 두나라는,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개혁후에는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그리고 구소련은 러시아 등의 국가로 분할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변환을 하였다. 개혁으로 인한 유통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 국가행정기관의 계획·통제하의 분배적 중앙공급체계가 제조기업과 유통기관과의 계약이 중심이 되는 계약 유통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유통기업이 국영으로 운영되었고 행정기관의 국가적 유통계획에 의하여 운영된 관계로 유통기업이 국가전체의 유통시스템내에서 생산제품에 대한 분배적 역할밖에 못하였던 분배중심적인 유통이었는데, 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계약관계의 유통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단지 이러한 자율적인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이, 러시아의 경우는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민영화된 기업이고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계약적 유통체제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들나라로 진출한 대부분의 서구기업들은 양국의 유통체제를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유통과 같이 생각하여 유통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후에도 양국의 유통제도는 개혁전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과도기의 마찰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바뀐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구적 의미의 유통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양국에서 일어나는 서구적 유통체제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양국의 특이한 유통현상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개혁후 양국의 유통체제도 경제체제분석의 기초가 되는 경제조정기구문제와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로 나누어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러시아의 유통체제를 먼저 경제조정기구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개혁전에는 정부계획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분배되던 제품이 개혁후에는 서구의 자본주의국가에서처럼 사유화된 제조기업이 독자적으로 선택한 유통채널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전체유통체계에서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분배시스템에서는 시스템 구성분자에 불과하던 제조기업의 위치가 개혁후에는 서구의 자본주의기업처럼 유통시스템내에서의 리더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서구의 제조기업이 일정한 계약기간에만 또는 그 기업제품에 대해서 재무적 및 기술적 서비스가 아주 좋을 때에만 유통시스템에서 시스템리더를 할 뿐 그 기간이 지나면 제조기업의 리더위치는 없어지는데 비하여, 개혁후 러시아의 경우 제조기업은 구소련당시부터 존재하던 한두개의 거대한 것밖에 없어 유통기관들은 제조기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혁후에도 러시아의 제조기업이 유통시스템내에서 구조적으로 배타적 독점공급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개혁후에도 러시아 제조기업이 유통시스템에서 배타적 독점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구소련에서부터 존재하던 제조기업과 경쟁할 만한 신생제조기업이 아직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러시아의 유통체계는 개혁전 국가계획에 의한 제품의 국가적 분배채널에 의해 개혁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조기업간의 경쟁상황하에서 자기제품의 유통경로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서구적 유통체계와는 많이 다르다. 이뿐만 아니라 개혁후 러시아 기업들은 시장이 경제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유통기업으로 이루어진 유통체계가 서구유통체계를 닮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경제조정기구의 변화과정에서뿐 아니라, 개혁후 러시아유통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는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에서도 특이성이 나타난다. 개혁후 많은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민영화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매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경매방식으로 하는 반면, 제조기업이나 도매기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대부분이 주식회사로의 전환 후 주식매각 방법으로 하고 약간만이 경매를 통해서 민영화를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외국인 기업은 1차 경매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제조기업 및 도매기업은 대규모 주식회사화되고 이와는 반대로 소매기업은 소규모 일인기업화되었다.

이렇게 민영화되었다 하더라도 유통기업의 소규모 민간소유주의 경우에는 개인적 축적자본이 없어 유통기업의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데다 대부분 개혁전의 유통기업을 그 종업원이나 개인자본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민영화된 후 아무런 투자없이 경영을 하고 있어서 개혁전의 유통기업상태에서 규모나 시설에서 크게 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제조기업은 애초부터 국가시책에 따른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국가에서는 민영화하려하나 축적자본이 없는 러시아인들이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서 아직 국유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 총생산의 20% 가깝게 차지하였던 군수산업시설을 민영화하기는 그 규모면에서 뿐 아니라 국가기밀면에서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상당부분 국가소유는 그대로 놔둔 채, 생산라인을 민수화제품 생산라인으로 전환시키거나 군수제품 생산라인 외에 민수제품 생산라인을 새로이 추가시키거나 또는 민수화할 수 있는 기술만을 민간제조기업에 매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한 유통기업의 경우는 제조기업과의 규모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조기업의 영향에서 벗어기는 힘들다. 게다가 이러한 민수화제품을 생산

하는 국가소유 제조기업은 물론 군사기술을 응용하고 있는 민간제조기업도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소규모의 러시아 유통기업이 민영화되었더라도 아직까지 국유상태로 있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제조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서구적 유통기업과 같이 개인적 소유주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게 된다. 이렇듯 개혁후 러시아의 유통기업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관련된 민영화에 있어서도 서구적 유통기업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현재의 유통체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아직 개혁초기의 불안정한 단계로 서구의 유통체계와는 경제조정기구의 측면에서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의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윤찬혁 1993, 장영준 1994, Götz-Coenenberg 1990, Bauer 1989, Götz 1991b).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체계와는 다르게 개혁후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기업의 소유권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되 기업의 경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경영을 하는, 즉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소유형태인 국유기업(國有企業)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가 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국민전체가 소유한다는 면에서 자본주의체제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하고, 기업경영을 자율에 맡기고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성을 올린다는 면에서 계획경제체제보다 더 효율적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모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과거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 비하여 효율성에 있어서는 진일보하였으나, 이러한 이상적 모토는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성장은 되고 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 기업가와 행정공무원과의 마찰, 이증가격으로 인한 경제혼란 등의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ong 1992, Herrmann-Pillath 1989a, Herrmann-Pillath 1989b).

중국의 유통체계에 있어서는, 개혁으로 인한 여러가지의 특이한 현상이 경제조정기구문제인 시장경제체제 및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인 사회주의체제와 관련하여서 각각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결합으로 인한 괴리성과 관련되어서도 발생하고 있다.

첫째문제인 경제조정기구와 관련하여서 볼 때, 중국은 기업내의 경영을 자율적으로 하게하고 생산기업과 유통기업간의 직거래계약을 허용하게 되자, 과거의 유통시스템에서 국가계획기관의 하부구성원에 불과하던 제조기업이 자신의

상표 및 이미지와 기술적 서비스로 유통시스템의 리더로 차츰 자리잡고 있는 점은 서구적 시장경제체제와 같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지만, 주요 식량이나 에너지 등 정부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하고 그외의 제품에 한하여 가격을 자율화시키고 있어, 정부가 가격책정 면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은 서구적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점이다. 이외에도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하되 재화의 종류에 따라 유통방식이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 이러한 재화의 분류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또하나의 서구적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상당수의 재화에 대하여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유통계약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가격과 고정가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여러 형태의 유통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재화의 종류를 정부가 정한다는 면에서 서구적 시장경제체제의 유통과는 상당히 다르다.

둘째문제인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련하여서 볼 때, 중국의 유통체제는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체제로 인해 개혁후에도 모든 기업이 정부가 소유하는 국유기업이라는 점은 당연히 자본주의체제와 다르다. 이러면서도 개혁전 기업의 소유형태와는 상당히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은 개혁후 제조기업이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의 유통업에 참여하는 공무결합(工貿結合)을 국가가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사회주의하에서도 공무결합으로써 경직된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국가소유인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결합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마케팅을 본받아 제조기업이 유통기업을 수직적으로 소유권까지 가지게끔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개혁전에는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이 병렬적으로 국가소유로 존재하던 것이 개혁후에는 유통기업의 소유문제를 국유기업인 제조기업에 귀속시킴으로써,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째,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상당히 모순되는 두 제도의 결합으로 인하여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유통기업의 경영은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기지만 사회주의체제여서 유통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인선이나 재투자문제 등의 주요문제에 있어서는 국가행정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통행정에 있어서 처리기관이 중복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유통행정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으로 인한 괴리성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특이점은 유통체제의 지방분권화인데, 이로 인해 각 지역내 유통시장은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각 지역간에 이질화 및 폐쇄현상이 일어나고 각 지역의 시장제도

와 등록절차, 금융제도 등이 서로 달라 유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기업의 원자재 구입시 원자재 질에는 관계없이 자გი지역 원료만 구입해야 하는 등의 서구적 유통과는 상당히 다른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다(석상준 1993, 한중민 간경제협의회 1994, 무역연수원 1994).

V. 개혁후 러시아와 중국의 일반적인 유통현상

1. 러시아의 유통현상

개혁으로 인하여 러시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유통현상의 특이한 점으로는, 형식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도 러시아정부의 연방계약회사와 상품거래소에 대한 간접적 통제를 통하여 실제로는 정부의 유통기업전반에 대한 조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개혁으로 인한 빈부격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마찰적으로 이중구조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러시아정부의 유통기업전반에 대한 조정현상을 유통담당 행정기관의 변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분배중심의 구소련 유통산업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두번의 자리바뀔을 하게 되는데, 먼저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과거 고스납산하에서 유통의 통제를 담당하던 여러 국가행정기관이 물자·유통부로 통합되어 유통기관에게 어느정도의 자율화를 허용하면서 국가전체의 유통부분에 대한 유통합리화를 시작하다가, 1993년부터는 이 행정부서도 해체되어 정부조직형태의 유통관리기구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전의 통제중심의 유통제도는 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의 유통혼란을 막기 위해, 과거 물자·유통부에 소속되어 있던 기업들의 유통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담당하는 주식회사형태의 Roscontract회사와 Roskhleboprodukt회사라는 연방계약회사가 유통산업의 조정역할을 하는 연방계약체제로 바뀌었다. 여기서 연방계약체제란, 정부기관인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연방계약회사가 일반 도매유통기업의 주식을 51%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계약회사를 통해 국내의 물자수급시장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연방계약회사 중 Roskhleboprodukt회사는 곡물, 식료품, 곡물가공생산을 담당하고 Roscontract회사는 일반공업품이나 일반소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약은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업적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들 회

사의 100%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까지 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의 유통의 전반적인 상태는 정부의 간섭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연방계약회사는 산하에 있는 공화국 도매중개업자, 도매상, 지방영업회사를 통하여 생산기업이나 부품공급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기관의 국가적 수요에 필요한 제품을 충당하고 있는데, 국가의 중요제품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는 연방계약회사가 정부행정기관의 간섭을 받게하는 등의 내적인 통제를 받게 하여, 대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도 러시아정부가 유통전체에 대한 간접적 조절을 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이외에도 대외유통에 대한 통제체제의 유지, 에너지·농산물의 국가수매 및 도·소매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 정부의 대주주 지분유지 등을 통하여 유통전체를 조절하고 있다(Deliagin 1992, 이윤 1993).

러시아 유통에서의 또하나 특이점은, 러시아정부가 민간유통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품거래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러시아유통에 있어서 상품거래소의 위치가 매우 크다는 점자체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개혁 바로전에는 국가조달후에 남는 여러 종류의 잉여생산품이 암시장에서 유통되었는데, 이 암시장을 양성화하고자 생긴 상품거래소에서는 초창기에는 주로 곡물이나 공업일용품이 취급되었었다. 이 품목들이 다양화되면서 전체유통량의 35%를 점할 정도로 러시아 유통시장에서는 상품거래소는 양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볼 때 서구적 시장경제 내에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구국가에서의 상품거래소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품수급의 질과 양이 안정될 때, 거래중개자가 제품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서 선도거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전문분야별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개혁 후에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데다가 상품의 질이나 규격 등에서 표준화도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상품거래소별로 특정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나의 거래소에서 여러개의 품목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 소매상에서 다루어야할 일용잡품까지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품목에 대한 등급체계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상품거래소가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하여, 국제식품거래소, 목화거래소 및 귀금속거래소 등과 같은 거래소에서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할 뿐 아니라, 비록 많지는 않지만 선물이나 옵션 등의 선진적인 상품거래소 방법으로 제품을 거래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상품거래소의 사업내용은 비록 고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양적으로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 발전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 마디로 러시아의 상품거

래소의 전체거래량은 서구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지만, 그 사업내용은 아직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거래소는 구소련 말기의 혼란기 때 정부와의 계약생산분을 공급하고 난 뒤의 잉여생산분에 대한 암시장에서의 도매유통에 대하여 개혁 후 이를 양성화하고자 생겨났기 때문에, 발생과정도 성숙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다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간섭정도도 자본주의보다는 심하다. 즉, 각각의 상품거래소는 상품거래소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하는데, 상품거래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승인하여야 하고, 상품거래소는 정부에서 파견된 국가파견원에 의해 거래소의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관련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상품거래소는 시장경제체제의 경영원리에 의해 운영되긴 하지만, 내부조직면 내지 활동면에서 러시아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윤찬혁 1993, 이윤 1993).

유통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도·소매업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도·소매업의 형태를 분류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선 도매유통업체의 형태를 보면, 국영도매업체외에도 연방계약회사를 통하여 국가수요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매중개회사가 있고, 또 특정품목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품거래소가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많이 받는 도매업체 외에도 비도시지역에 주로 있는 소비자협동조합들의 총연합체인 중앙연합과 서방수출입회사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새로이 설립한 순수한 민간도매업체 등이 있다. 그리고 소매유통기업의 형태를 보면, 국가가 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적어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경영하는 국영소매점과 각 지방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자조합소매점이 약간 존재하고 있으나, 개혁전에는 국영소매점이었던 것을 개인이나 과거의 그 유통업체 종업원이 국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서방회사의 자금지원을 받아 완전히 새로이 설립한 개인상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통기업의 형태를 볼 때, 정부의 유통기업에 관한 간섭은 소매업체보다는 도매업체에 대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찬혁 1993).

마지막으로 개혁으로 인한 러시아 유통의 변화는 지금까지 설명한 유통체계의 변화 뿐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심한 빈부격차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구입에 대한 대응재로서 상이한 화폐를 사용할 정도로 소비자가 마찰적으로 이중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소수의 부유층은 외국경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기업제품과 서방제품간 품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유층은 수입품을 외국경화로 구입하고 대부분의 빈곤층은 값싼 자국제품을 자국화폐로 구입하는 이중구조적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상품을 의도적으로 싸게 판매하는 생필품, 그 중에서도 식료품에서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소수의 부유층은 외국경화로 수입상점에서 값비싼 고질의 수입식료품을, 대다수의 빈곤층은 텅빈 국영상점 앞의 긴 줄에서 장시간 기다리면서 시장가격이하의 값싼 중·하질의 자국식료품을 자국화폐로 구입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빈곤층은 개혁전의 구소련생활이 개혁후의 생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여 과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통혼란과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다(Deliagin 1992, Götz 1991a).

이러한 유통혼란과 빈부격차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개혁으로 인한 유통상의 구조적 변환뿐만 아니라 개혁으로 인한 공급부족에서도 그 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공급부족현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 즉, 과거 냉전시절부터 부족한 국가기금의 상당부분이 군비확충용으로 쓰여졌으며 과다한 외채의 상환으로 인해 기업에 줄 국가여유자금의 고갈되어 기업투자에는 신경을 쓸 수 없었는데, 그나마 계획경제체제시에는 있었던 국가로부터의 기업보조금이 개혁으로 인해 중단되어 기업의 운영자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공급자 측면에서와 공급부족을 미리 염려한 나머지 부족한 제품에 대한 사재기심리로 인한 수요자 측면이 서로 겹쳐 아주 심각한 공급부족상태가 발생하였다(Götz-Coenenberg 1989).

2. 중국의 유통현상

개혁후 중국의 유통현상을 소비재(상품)와 생산재(물자)로 나누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비재의 유통에는 도매방식과 소매방식이 있는데, 우선 도매유통방식을 살펴보면 이에는 6가지가 있다. 즉, 식료품이나 기름과 같은 주요 생필품과 주류와 같은 전매품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직도 관여하여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국영도매기업에 판매하도록 하는 총체구매(總體購買)로, 채소, 비누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획에 의해 관리하되 계획초과 잉여분은 생산단위가 직접판매할 수 있는 계획구매(計劃購買)로, 신발, 건전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업과 도매기업이 연합하여 생산·판매하는 주문구매(注文購買: 訂購)로, 시장수요가 자주 변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도매상이 상품을 선매하되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생산기업과 협상하는 방식인 선택구매(選擇購買)로 도매유통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규모 생산기업이나 외국(합작)제조기업이 시장개척할 때 대리하여 판매하는 대리도매(代理都賣), 생산기업과 유통기업이 연합경영하는 도매방식인 공상연합(工商聯合)방식이 있다. 이와같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후에도 소비재의 도매에 있어서 정부가 정한

재화의 종류에 따라 유통산업을 통제한다.

개혁후의 소비재에 대한 소매방식 또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상품을 해당경제구역에 할당된 도매기업으로부터 구입하되 '부족시에는 외지 구역에 있는 도매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 백화점과 같이 규모가 큰 소매기업인 경우 해당경제구역에 관계없이 공업기구나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 여러 도시에 있는 공산품도매센터에서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재유통을 하는 소매기업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의 하나인 국내무역부의 통제를 받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대규모 백화점과 백화점간의 연합유통기관인 상업연합이 주축을 이루는 전민소유소매기업, 공장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입하여 농촌 및 각 지역에 소매를 위주로 하되 도매도 하는 집체상업소매기업, 국영기업이 개인에게 임대하여 경영하게 하는 개체상업소매기업, 그외 합자기업 및 소규모 소매상이 있다. 이와같이 현재 중국에서는 소비재의 경우 소매유통기업에서 도매업을 할 수 있어 도·소매업의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집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단지 국영상점은 전체유통의 40%를, 협동조합상점과 같은 집단소유상점은 약 30%를 점하고 있으며 자영상점은 총매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4, 무역연수원 1994).

이러한 소비재 상품시장이 과거에는 만성적으로 공급부족을 겪었던 관계로 개혁후에는 소비재 중에서도 경공업분야를 집중투자하여 소비재생산은 어느정도 활성화되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국가계획의 분배정책과 시장경제의 혼란으로 인하여 유통산업은 아직 합리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재가격에 있어서 과거 획일적인 사회주의 가격체제가 경제를 고착화시키자 개혁후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으로 나누어 이중가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석상준 1993).

둘째, 생산재(물자)유통에 있어서는 개혁전 국가가 획일적으로 계획·통제하던 것이 개혁후에는 아래와 같이 생산재의 종류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중요 원자재와 연료 중 공급이 부족한 생산재는 국가계획분배물자로 분류하여 국가가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분배하고, 국가적인 중요생산설비의 건설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같은 생산재는 공동발주물자로 분류하여 국가가 계획하되 기업에게 공동발주를 하게하며,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에 쓰이는 생산재는 수급조절물자로 분류하여 국가행정부서가 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에 협의를 주선하여 수급안정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일반생산재는 자유구입·판매물자로 분류하여 기업이 직접 생산재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재에 대한 가격체제도 상기한 물자유통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다양화되었는데, 즉 국가계획분배물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가격인 공정가격을 적용하고, 그외의 물자에 대하여서는 국가지도하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가격인 협의가격이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재화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중 시장가격의 비중이 차츰 커져 현재는 전체가격 중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자유통방식과 물자가격이 다양화 된 외에도 공급량을 정하는 방식 또한 물자의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다양화되었다. 즉 국가계획분배물자에 대해서는 생산기업과 실수요기업이 고정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물자를 공급받게 하는 정점정량(定點定量)공급방식으로, 그외의 물자 중 중점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물자기업과 생산건설단위가 협의방식으로 건설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세트공급청부방식으로, 그리고 기업이 소량을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국가계획기관이 발행하는 물자배급증서를 근거로하여 공급받는 배급표공급방식으로 다양하게 물자공급량을 정하고 있다(최수웅 1993).

요컨대 개혁후 중국의 유통구조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통제적 유통과 기업이 독자적인 의사결정하에 판매하는 시장경제적 유통이 공존하는 이중유통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구별기준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정부가 정하고 있으며, 생산재가 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해 가격이 책정될 뿐 아니라 기업의 유통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유통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는 일용공업품이나 농수산물 등의 소비재를 담당하는 상업부와 공업용 원·부자재 및 에너지 등의 생산재를 담당하는 물자부가 각기 존재하였는데 1993년 양부서가 국내무역부로 통합되었다(무역연수원 1994).

VI. 결 론

지금까지 본문에서는 사회주의 유통의 일반적 성격을 기본으로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유통현상을 각각 개혁전과 개혁후로 나누어 서술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시켜 보았다. 이렇게 중·러의 유통현상을 개혁전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 개혁후의 경제체제의 변화라는 경제체제의 측면과 결부시켜 고찰함으로써, 개혁 후 언뜻 자본주의 유통체제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그와 많은 면에서 상당

히 다른 중·러의 유통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혁전에는 중국과 구소련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은 자주적 의사결정권이 없었으며 기업존립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경쟁적인 경영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생산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대한 서비스노력이나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노력조차 거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조기업은 생산제품의 유통시스템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전체시스템에 속해있는 유통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였다. 또한 경제조정기구를 국가계획에 맡긴다는 계획경제원칙에 따라, 상기한 유통체계 그 자체도 국가차원의 시장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체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개혁후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기업소유만 국가가 담당할 뿐 경제조정은 시장이 담당하는 경제체제로 바뀌고, 구소련은 러시아 등의 국가로 분열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 들여 적어도 법적으로는 서구국가와 같이 기업도 민간소유화하고 경제조정도 시장이 하는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러시아기업이 중국기업에 비해 기업존립에 대한 위험성과 기업의 독립성이 현저히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양국의 기업은 개혁전의 기업에 비해 볼 때 기업의 서비스, 시장조사 및 유통시스템에서의 역할 등의 면에서 질적으로 많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내의 중국 기업은 그 소유가 국가인 관계로, 러시아기업에 비해 아직도 여러면에서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제조기업이 유통시스템내에서 배타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되고 민영화된 개인유통기업이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하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의 유통체계가 서구적 유통체계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가격책정형태와 유통방식구별의 기준이 되는 재화의 종류를 정부가 정하고, 공무결합현상이 나타나 유통기업을 국유기업인 제조기업에 귀속시켜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유통행정의 혼란현상과 유통체제의 지방분권화현상이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관련되어 분석한 러시아와 중국의 유통체제를 비교·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통체제>

	분류기준	러 시 아	중 국
개 혁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소유 경제조정기구 기업의 독립성 기업존립의 위협 이미지제고노력 서비스노력 유통시스템 강도 제조기업의 위치 유통의 성격 시장조사주체 제품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국영기업) 국가계획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국가경제시스템보다 약함 유통시스템내 단순한 구성원 생산되어진 제품의 국가적 분배 국가기관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에 따른 국가공식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국영기업) 국가계획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국가경제시스템보다 약함 유통시스템내 단순한 구성원 생산되어진 제품의 국가적 분배 국가기관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에 따른 국가공식가격
개 혁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소유 경제조정 기구 기업의 독립성 목표 기업서비스목표 기업존립의 위협 시장조사주체 국가의 유통통제 유통시스템강도 유통의 성격 제품가격 유통의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민간기업) 시장 완전독립 서구기업수준 상당히 높음 기업 약하게 존재 국가경제시스템보다 강함 민간제조기업과 민간유통기업의 자유판매계약 빈부의 격차에 따른 시장가격의 복수화 (정부의 가격지도 없음) 1. 제조기업의 배타적 시스템리더 2. 민영화된 유통기업의 의사결정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국유기업) 시장 제한적 독립 국가기관과 동의하에 결정 거의없음 국가기관통제하의 기업 강하게 존재 국가경제시스템과 비슷 국유제조기업과 국유유통기업의 제한적 판매계약 국가지도하의 제품종류에 따른 시장가격의 복수화 1. 정부가 정한 재화의 종류에 따른 가격다원화정책 및 유통방식 다변화 2. 공무결합 3. a. 유통행정의 중복과 혼란 b. 유통체제의 지방분권화

본 논문은 지금까지 분석한대로 중·러의 개혁전 및 개혁후의 유통현상을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체계화시켜본다는 데에서 학문적 유용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방향은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의 각국의 유통제도에 대한 설명이 주였는데, 이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중·러의 유통현상을 개혁이라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제체제적인 방향에서 경제체제의 분석틀인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와 경제조정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무에 있어서는 양국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본주의기업 그중에서도 남한기업에게 양국의 유통현상에 대한 정보를 주는 동시에, 현재 유통현상에 대한 체계를 개혁전 및 개혁후의 경제체제의 기본구조와 관련시켜 이해하도록 하여 양국시장진출에 대한 전략수립에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본논문이 학문적인 면에서나 실무적인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이 논문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 김영봉 (1987), 경제체제론, 박영사, 서울.
- 무역연수원 (1994), 중국시장진출전략, 연수 94-19, 한국무역협회, 서울.
- 박기안 (1989), 대공산권교역 마케팅전략,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 석상준 (1993), 중국의 주요업종별 유통시장 현황, 북방산업동향 93-04, 산업기술정보원, 서울.
- 석상준 (1993), 중국의 주요업종별 유통시장현황, 산업기술정보원, 서울.
- 윤찬혁 (1993), 러시아의 상품유통제도 개혁, 조사보고 9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 이운 (1993), 러시아의 기업운영체제, 연구보고서 282호, 산업연구원, 서울.
- 장영준 (1994),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와 우리의 참여방안", 러시아진출 어떻게 할 것인가 (박현우 편), 129-159, 산업기술정보원, 서울.
- 최수용 (1993), 중국의 물자유통제도 분석, 연구 보고 9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 한국무역협회 (1991), 소련의 주요 산업별 현황, 국제 91-07, 한국무역협회, 서울.
- 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4), 중국의 유통산업현황과 진출전략,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 홍순태 (1990), 개방·개혁시대의 중국경제, 을지서적, 서울.
- Bauer, T. (1989), "The Firm under Perestroika",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o. 37, 1-41.
- Deliagin, M.G.(1992), "The Consumer Market in the USSR",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 A Journal of Translations from Russian*, Vol. 35, No.4, Aug., 57-70.
- Fahr, J. (1977), *Determinanten und Methoden für ein Marketing-Konzept beim Export westdeutscher Investitionsgüter nach COMECON-Staat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ungarischen Verhältnisse*, Diss. Stuttgart.
- Freinkman, L.(1992), "Shaping a Market Environment and Analysis of the Enterprise Interaction Mechanism", *Studies on Soviet Economic Development*, Vol. 3, No. 2, Apr., 101-108.

- Freris, A. (1984), *The Soviet Industrial Enterprise - Theory and Practice*, Croom Helm, Sydney, Australia.
- Götz, R. (1991, a), "Die leeren Regale und die sowjetische Statistik",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o. 6, 1-7.
- Götz, R. (1991, b), "Auf dem Weg zum autonomen Unternehmen? - Wirtschaftsrechtliche und betriebswirtschaftliche Aspekte der sowjetischen Wirtschaftsreform",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o. 20, 1-39.
- Götz-Coenberg, R. (1989), "Die Konsumgüterversorgung in der Sowjetunion - Lage und Aussichten",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r. 55, 9-73.
- Götz-Coenberg, R. (1990), "Der sowjetische Weg zur Marktwirtschaft ab 1986", *Aktuelle Analysen -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o. 39, 1-8.
- Heinzig, D. (1990), "Stand und Perspektiven der sowjetisch-chinesischen Kooperation",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r. 9, 7-27.
- Heitger, B. (1990), "Wirtschaftliches Wachstum in Ost und Wes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seit 1950", *Die Weltwirtschaft*, H.1, 173-192.
- Herrmann-Pillath, C. (1989, a), "Neue Wege der chinesischen Wirtschaftsreform - Märkte für Eigentumsrecht an Betrieben", *Aktuelle Anaysen -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n Studien*, No. 4, Deutschland.
- Herrmann-Pillath, C. (1989, b), "Potentielle Auswirkungen der chinesischen Wirtschaftskrise auf den mittelfristigen Verlauf der Öffnungspolitik", *Aktuelle Anaysen -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n Studien*, No. 19, Deutschland.
- Hirsche, H. (1990), "Probleme der Perestroika sowjetischer Planwirtschaft", *Osteuropa*, 40. Jg., H. 8, 728-760.
- Peters, H.-R. (1987), *Einführung in die Theorie der Wirtschaftssysteme*, Oldenbourg, München.
- Song, X. (1992), *Prinzipien und Strategien der institutionellen Reformen- Zur Transformation sozialistischer Wirtschaftssysteme in eine Marktwirtschaft*, Institut für Wirtschaftspolitik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Uhlig, K.-H.(1977), *Marketing - Strategie des manipulierten Marktes*, Köln.

Welfens, M.J. (1988), "Das Phänomen der Schattenwirtschaft im Sozialismus", *Osteuropa Wirtschaft*, H1, März, 1-15.

Whitesell, S.(1990), "Why does the Soviet Economy Appears to be allocatively Efficient", *Soviet Studies - A Quarterly Journal on the USSR and Eastern Europe*, Vol. 42, No. 2, 259-268.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hinese and the Russian distribution systems comparatively focusing on the economic system. Before the economic transformation both nations wer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After the economic transformation China is under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and Russia under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the distribution systems of both nation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It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nd distribution companies, and the national planned distribution of products before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both nations. It examines the privatization of distribution-related companies and the structurally exclusive supply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distribution system in Russia after the economic transformation. It also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ized control of nationalized manufacturing companies over distribution companies, and the national intervention of product pricing in China.